

문화산책

강경호

시와사람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평론본과 회장

관계의 시학은 본래 블레이크, 에이츠, 하리의 관계를 시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각 작품에 나타난 작가 간 변화를 통해 시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려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필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드러난 관계성, 나아가 인간과 사물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분열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통합과 화합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는 확신 아래 상대의 주장을 꺾려는 일이 서슴없이 이루어지고, 상대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반대를 위한 비난이 일상화된 것이다.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이념을 둘러싼 갈등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진영논리가 앞서고 있다. 이는 소신에 따른 신념의 실천이라기보다, 철저히 이익을 위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문제적이다. 선거를 떠올려보면, 어떤 선거이든 결과는 오직 승자와 패자로 나뉜다. 승자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무사처럼 상대를 괴멸시키려 하고, 이를 전리품처럼 여겨 논공행상을 일삼는다. 그 결과 화합은 요원해지고 분열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럼에도 집단지성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역사는 최후의 승자가 언제나 대다수의 국민이었음을 증명해 왔다. 그 과정이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나, 정의로운 결국 선(善)과 손을 맞잡아 왔다. 우리의 근현대사

관계의 시학과 소통방식

는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지난해 12·3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섰고 광주문인협회와 전남문인협회의 선거도 치러졌다. 다행히 극한의 분열로까지 치닫지는 않았다.

현재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 아직 다소의 불협화음은 있으나, 우려할 만한 시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문학단체들 또한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회장 선거를 치러낸 점은 고무적이다. 각 단체의 장들은 임기 동안 공동체가 더욱 발전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논의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하며 맺어갈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이나 행정가, 단체장들이 과거에 자신들과 경쟁했던 상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상대를 배제하고 논공행상을 반복해 온 것이 그간의 패배였다. 특히 선거 공신들이 국가와 단체를 사유화하듯 좌지우지하는 일은 반드시 경계되어야 한다.

관계란 사람이나 사물, 혹은 현상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인은 자신의 작품세계를 홀로 구축해 나가는 고독한 존재다.

그러한 문인들이 모여 이룬 것이 문학공동체이다. 개별 예술가는 누구의 도움도 대신 받을 수 없지만, 문학공동체는 보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문학적 화두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길가에서 흔히 마주치는 전봇대를 볼 때마다 문학청년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술에 취한 후배가 전봇대를 집인 줄 알고, 전공들이 오를 때 사용하는 발디딤쇠를 옷걸이처럼 여겨 옷을 걸어둔 채 전봇대에 기대 잠들곤 했다. 또 문단의 한 일로 시인은 술에 취하면 개처럼 전봇대에 오줌을 누곤 했는데, 이를 두고 누군가는 그를 ‘개’라

부르기도 했다.

수십 년이 흐른 오늘, 다시 전봇대를 바라보며 나는 ‘관계’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개는 전봇대에 다가와 냄새를 맡고 오줌을 누고 떠난다. 전봇대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 봉지가 놓여있고, ‘위험’이라는 붉은 글씨의 뜻말이 붙어 있다. 그 옆에는 바람에 노란 잎을 흩날리는 가을 은행나무가 서 있다.

그러나 전봇대에 오줌을 누고 가는 개와 전봇대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개는 냄새를 맡고 지나갈 뿐, 그 흔적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쓰레기 봉지와 전봇대 사이에도 관계는 없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던 전봇대와 은행나무 역시 소통하지 않기에 관계가 부를 수 없다. 전봇대에 붙은 ‘위험’이라는 경고를 인지한 것은 나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 전봇대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전봇대의 상황과 누군가의 경고를 인식했을 뿐이다.

하지만 전봇대에 올라 작업하는 전공들과 전봇대의 관계를 떠올려본다. 가뭄에 은행나무에 물을 주고, 겨울마다 가지치기를 해온 사람들과 은행나무의 관계도 생각해 본다. 전봇대와 은행나무는 인간과 직접 소통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일터로 삼고 돌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사유를 거쳤을 것이다. 전봇대는 전기를 전달하는 다리가 되고, 은행나무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생명의 푸르름을 더한다.

전공과 나무를 돌보는 이들의 마음이 깃든 전봇대와 은행나무가 있는 도시 변두리의 풍경 속에서 나는 관계를 사색한다.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지탱한다. 존재는 서로 마주하고 소통할 때 비로소 의미를 얻는다. 소통하지 못한 채 경계만을 세우거나 완결된 닫힘으로 남는다면, 그 존재 가치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를 쓰는 나 역시, 인간의 삶을 올바른 ‘관계의 시학’으로 바라보며 세계를 사유하고자 한다.

기고

김은식

광주서석고등학교 3학년 진학부장



서석인이며, 빛 속을 걸어간다. 광주서석고등학교는 설립자 고 최상욱 이사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197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50여 년간 후학 양성의 길을 걸어왔다.

자율적인 환경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하고, 교직원들은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가르침으로 서석인이 보다 진취적이고 개척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올해 역대 6번째 광주지역 수능 만점자가 우리 학교에서 탄생하는 성과로 돌아왔다.

광주에서는 2001학년도, 2012학년도, 2014학년도, 2015학년도, 2016학년도, 그리고 이번 2026학년도까지 총 6차례 수능 만점자가 나왔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중 2001학년도, 2014학년도, 2016학년도에 이어 2026학년도 수능 만점자까지 모두 광주서석고 재학생이라는 점이다.

‘빛나는 전통’의 서사

특히 이번 수능 만점자 배출은 광주에서 무려 10년 만에 거둔 성과다. 또 광주 만점자는 전국 5명의 만점자 중 표준점수가 가장 높기까지 했다. 광주서석고가 수능 만점자 배출의 ‘빛나는 전통’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빛나는 전통’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비전을 품고 묵묵히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 뒤에는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전문성을 키우고, 봉사와 성실의 정신으로 학생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선생님이 있다.

학교에서는 ‘맑은 정신이 학습의 기반’이라는 교육적 신념 아래 학생들이 검도 수련을 통해 집중력과 끈기를 기르고 내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자율·진로·동아리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진로와 역량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0년 만의 경사에는 광주교육의 정책적 뒷받침도 한 몫했다. 직선4기 광주교육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습공간이 마땅찮던 일반계 고등학교에 카페형 스터디

공간 ‘365-스터디룸’을 조성해 아이들이 공부하는 재미에 눈을 뜨게 했다.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갈피조차 잡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진학지도와 멘토링을 제공해 방향성을 제시했다. 12년간 달려온 길이 험되지 않도록 모든 고등학교에 대입 디렉터를 배치해 전문적인 진학지도를 실시하고, 맞춤형 진로진학 특강, 면접 훈련 등을 통해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돕고 있다.

공부 대신 다른 꿈을 좇는 아이들을 위해 ‘광탈페(광주 학생탈렌트페스티벌)’, 야의 버스킹, 글로벌 리더 세계한 바퀴, 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꿈을 향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노력은 하나 둘 쌓여 ‘다양한 실력’ 광주의 명성을 새롭게 만들고, 나아가 광주가 학력과 인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학생, 학부모, 교사, 시교육청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교육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이번 10년 만의 수능 만점자 배출은 단 한 번의 이변에 그치지 않고 ‘빛나는 광주’의 서사로 이어질 것이다.

원과 일부 정거장 주변 등 총 687m 구간은 자체 반입과 지하차도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단계적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공사 지연의 배경으로 예상보다 많은 지하 암반과, 30년 전 설계 기준보다 크게 늘어난 전력·도시가스·상하수 등 지하 매설물 문제를 들었다. 공정 관리가 복잡해졌고, 공사 여건도 당초 계획보다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자 지난 7월 시민불편 신속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 정비, 차선 재도색 등을 추진하며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번 도로 개방으로 도심 교통 여건은 분명 일정 부분 개선됐다. 그러나 도시철도 2호선 전체 완공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공사의 종착점이라기보다 중간 단계에 가깝다. 남은 공정의 관건은 같은 방식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있다.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장기 공사로 누적되는 시민의 일상 역시 같은 무게로 고려되어야 한다.

사설

양질의 일자리가 청년 ‘탈광주’ 현상 막는다

광주 청년들이 ‘탈 광주’하는 속사정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예정지로 수도권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지역에는 선택 가능한 대안이 없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다. 심지어 청년 70% 이상은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지역에 남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이는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 취업전략팀이 리서치 전문기관 ㈜와이즈초이스에 의뢰해 조선대 재학생과 지역 청년 307명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청년 취업 인식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지역 기업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 취업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매우 있다’ 44.0%, ‘있다’ 30.0% 등 응답자의 74%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지역내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역 정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지역 내 일자리 현주소에 대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다. 지역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38.4%로, 긍정적 응답 27.7%를 크게 웃돈 것이다.

지역 내 취업을 꺼리는 이유로도 절반에 가까운 46.6%가 ‘전공 일자리 부족’이라고 답했다. 이어 낮은 급여 수준 18.9%, 지역 기업 인지도 부족 17.3% 등 뒤를 이었다. 즉, 수도권과의 임금 격차보다는 전공과 경력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지역 청년 유출의 핵심 이유라는 얘기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할 교육으로는 43%가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꼽았다. 이어 21.5%는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 17.9%는 AI·스마트제조 등 최신 기술교육 등으로 대답해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확인한 광주경총은 앞으로 기업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에는 실무형 인재 양성 커리큘럼을 제안해 지역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여 나가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광주 청년인구의 순유출은 심각하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빠져나간 청년만 4만6396명에 이르고 지난해와 2023년 등 2년 연속 6000명대 순유출을 기록할 정도다. 진짜 고향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것이다.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지역 상생 절실

문을 연 지 40년이 넘는 지역 향토 사업장인 광주 북구 양산동 롯데칠성음료 광주공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사측이 공장 폐쇄를 논의하고 있어서다.

공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직접 고용 인원은 물론 물류와 운송 등 연관 산업까지 출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측은 최근 음료 산업 성장세 둔화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 합리화를 내세워 광주공장 등 공장 2곳의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노조 집행부에 내년 3월을 목표로 추진중인 공장 폐쇄 계획을 전달했으며 직원들은 희망퇴직이 아닌 타 지역 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했다. 이는 수십 년간 성장 일변도였던 음료시장이 최근 들어 소비가 줄어드는 등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공장 임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사측의 이같은 방침이 단순한 공장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의 삶 전체를 붕괴시키는 결정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사측이 제시한 300km 이상 떨어진 타 지역 공장으로의 전환 배치는 생활 터전을 버리라는 것으로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 을)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제조업 기반 붕괴의 신호탄으로 보고 전진숙 의원은 지난 22일 롯데그룹 임원진과 긴급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지면적 7만2700여㎡ 규모로 1984년 설립된 광주 공장은 그동안 칠성사이다 등 탄산음료를 주력 생산하며 광주와 호남 지역 물류 거점 역할을 해왔다.

또 신제품 파일럿 생산과 초기 품질 안정화, 시장 반응에 따른 소량·신속 생산 조정 등 대형 공장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능을 맡아오며 광주지역 음료 제조업의 기술 기반을 유지해 왔다. 연간 매출액은 330억 원 규모에 달하며 현재 정규직과 계약직 등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외주 경비와 물류, 운송 등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합치면 약 200여명의 생계가 이 공장과 연결돼 있다.

수십 년 동안 일터를 지켜온 직원들도 살리고 사측도 사는 상생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 경리장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사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는 설 실 370-7200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